

06 교회의 직원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구속을 허락하시면서부터 교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역사가 흐르는 동안 그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교회는 여전히 조직 속에서 발전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족장을 중심으로 제사 제도로 있었으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구약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스테반은 그가 순교하기 전에 한 설교에서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구체화 되었고 그 조직도 다양화 되었습니다.

1. 유기체적 교회, 조직적 교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에베소서 4:11)

2. 교회의 창설(비상) 직원 (Extraordinary officers)

창설(비상)직원은 사도 시대의 교회에만 있었던 직원들이다. 이들은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로 이적을 행할 권능을 주신 자들로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신 자들이다. 이 이적적 은사를 받은 인물들이 역사적 교회의 창설과 조직의 핵심을 구성하였다. 칼빈은 에베소서 4:11에 열거된 다섯 가지의 직원 중에서 처음 세 가지가 비상직원이라 했다.

1) 사도

사도직은 엄밀히 말하면 12사도와 바울 뿐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조력하고 사도적 은사와 은혜를 받은 어떤 사도적 인물들에게도 적용되었다. (행 14:4, 고전 9:5-6, 고후 8:23, 갈 1:19)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를 설치할 특별 직무를 가지고 있었다. 사도들은 교회의 설립을 위해서 전 세계로 파송된 자들이다. 사도들을 후계하여 직분을 받은 자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없고 사도들과 같이 특별한 권능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이다.

2) 선지자

구약시대 뿐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 (행 11:28, 13:1-2, 고전 12:10, 13:2, 엡 2:20, 3:5, 딤후 1:18, 계 11:6) 이 선지자들은 교회의 건덕을 위한 말씀의 은사를 비상히 많이 받은 듯 하고 이따금 신비를 계시하였다. 선지자의 직분은 복음(성경) 계시 종결과 함께 종결되었다.

3) 전도인

사도와 선지자 이외에도 전도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행 21:8, 엡 4:11, 딤후 4:5) 빌립, 마가, 디모데, 디도는 이 반열에 속하였다. 칼빈은 사도들의 반열 다음에 70인 제자들도 이 반열에 속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한다. (눅 10:1) 전도인에 대한 기록은 적으며, 이들은 사도들을 수행하여 조력하였으며, 사도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아 파송되기도 하였다.

3. 교회의 항존 직원 (Ordinary officers)

- 양떼를 감독할 뿐 아니라, 양떼의 모범이 되는 목자

1) 목사

- 말씀을 해설하고 선포하는 설교자

- 그리스도의 집을 잘 다스리는 청지기

-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시행하는 무익한 중

- 말씀을 잘 가르치고 권면하는 교사

-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

- 교인의 태도 (순종과 존경)

- 교회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

- 주의 양떼를 목양하는 청지기

3) 안수집사

- 안수집사의 자격 (딤후 3:8-13)

- 다스리는 직분이 아닌 섬기며 봉사하는 직분

-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구제의 일에 종사

- 교회의 재정 및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종사

2) 장로

- 장로의 자격 (딤후 3:1-7)

- 장로의 의무

- 존엄하고 유용한 직분으로 성령께서 세우신 직분자

4. 교회의 임시 직원

1) 권사

권사가 하는 일은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곤란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보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직분이다.

- 초대교회 여성 동역자들 (뵈뵈, 브리시가, 루디아, 도르가, 많은 여성 동역자들
*롬 16장 27명 중 10명이 여성)

2) 전도사

3) 그 밖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세움 받은 직분자들

5. 직분의 의미

1) 교회의 직분은 권세가 아닙니다.

2)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3) 교회의 직분은 오직 섬김의 자리입니다.

4) 교회의 직분은 기능적 구별입니다.

5) 교회의 직분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되심을 알리는 일입니다.

6) 교회 직분의 권위는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6. 직분자의 소명

직분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모두 받은 자로 세워집니다.

1) 내적 소명

내적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특별한 소명이다. 이 소명은 특별한 계시 외에, 섭리적인 지시로 이루어 지는데, (1)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 (2)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 (3)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확신과 체험이다.

2) 외적 소명

교회라는 매개를 통해 부르시는 외적 소명. 교회 성도들에 인한 부르심.

*평신도들은 심지어 사도를 선출할 때도 참여하였다. (행 1:15-26)